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45호 현대불교  
2009년 8월 19일(음 6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 네 나무를 네 뿌리가 돕지 어느 누가 돕겠느냐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대해서 궁금하게 느껴져 여쭙고자 합니다. 육신이라는 집이 있고 그 집의 주인인 마음이 있고 한데 마음 외에, 또 영혼(靈魂)이 있고 혼백(魂魄)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靈)과 혼(魂)과 백(魄)이 그 뜻이 다르다고들 일반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마음 외에 영과 혼과 백의 활동이나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질문이 혼돈스럽지만 잘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이라는 거하고 혼백이라는 건 둘이 아닙니다. 혼백이라는 건 옛날 분들이 혼백이라고 했고, 지금 시대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혼백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합니다. 그 영혼 자체가 바로 육신과 둘이 아닙니다. 이 육신과 영혼이 있는 데다가 그 불씨 에너지, 원소 자체가 있어서 즉, 작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 주게 하는 겁니다. 이 영혼이라는 그 자체가 마음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신이라고도 하고, 약신이라고도 하고 선신이라고도 하죠, 마음음요. 마음을 잘 쓰면 바로 선신이요, 마음을 약하게 쓰면 약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약신으로서 삶을 약하게 살았으면 아주 약적인 영혼이 되고요, 선의적으로 지혜롭게 대처를 해 나가고 마음을 넓게 잘 쓴 사람들의 마음은 약신이 아니라 선신으로서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 한군데서, 이 영혼이 약신도 나오고 선신도 나옵니다. 영혼 자체가 자기 근본은 아닙니다. 영혼은 약신이 될 수도 있고 선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영혼이라는 이름, 마음을 잘 쓰는 데서 나오는 선신도 영혼이요, 약신도 또 영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자기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혼백이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돌아가시면 재를 곱게 쳐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도환생을 했으면 발자국이 나타난다거나, 독사가 뚫으면 독사 흔적이 나온단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행을 한 혼백이라든, 귀신이 머리를 풀어서 산발한 한 모양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양을 보더라도 그렇고,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씨가 아니라, 그 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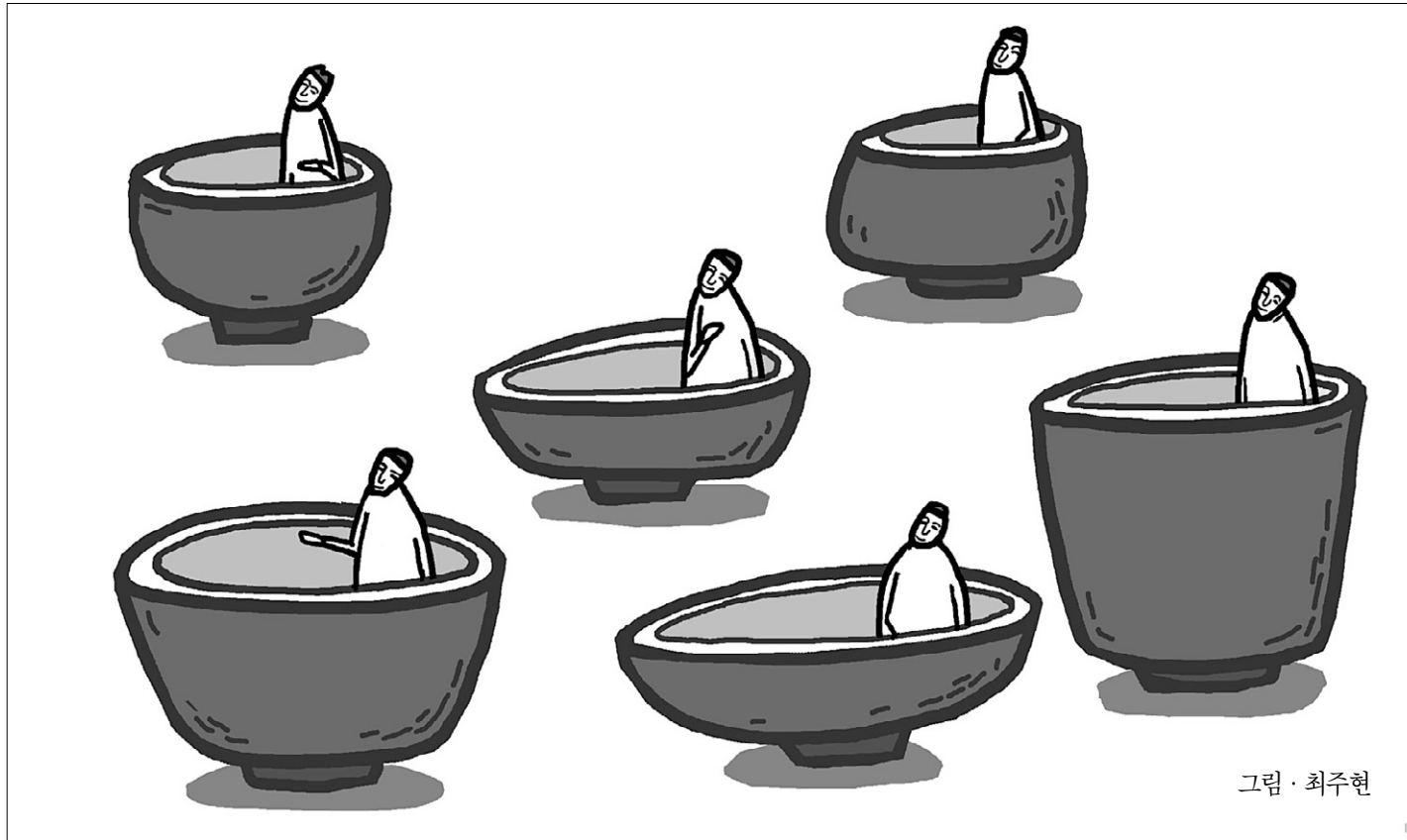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 주는 반면에 마음속에서 나와서 행동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거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업식' 이라고.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영혼의 업식은 따라간다고요. 자기의 불씨는 항상 밟아서 여여한데 그 업식 영혼이 그냥 열기설기 얽혀 가지고 업식이 돼서 현실에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질문자(2남):**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결국은 신으로 변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큰스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신도 되고 선신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신으로서 너무 약하게 했다면 진짜 약신으로 활동을 할 거고, 선신으로서 행했다면 선신으로 활동을 할 겁니다.

**질문자(2남):**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런데 우리가 공부시키는 거는 약신이고 선신이고 몽땅, 약신이 나오면 약신인 대로 거기다 놓고, 선신이 나오면 선신이 나오는 대로 감사하게 거기 놓고 이렇게 하라는 얘깁니다. 업

식이 다 이 몸속에 들어 있으니까 약신으로서 약행을 하게끔 이 마음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신으로서 행이 나올 때는 '어, 이것도 네가 저지른 일이나 네가 알아서해!' 하고 거기다 놓고, '이것도 공부고 재료지,' 하고 거기다 놓고요, 또 잘되고 싱그러운 일이 생기면 '이것도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하게 거기다가 맡겨 놓고요, '잘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만 해도 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죽어서도 영혼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고자 백종(百種)을 마련해 놓았고 칠석(七夕)을 해 냈죠.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사람이 죽으면 약행을 했든지 선행을 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서를 그냥 해결해 버리고 불씨를, 그냥 여러분이 땅을 갈아서 돌을 주워 내 버리고 골라 놓는다면 이 스님네들은 씨를 거기가 심어 주는 겁니다. 백종이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성껏 부모, 조상 영가들을 써 가지고 오시면 그게 밭을 갈고 밭을 고르는 거나 같은 거죠. 밭을 골라 놓으면, 봉투에다가 모두 이렇게 정성껏 해 가지고 오시는 건 그러한 작

업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 밭에다가 불씨를 심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인도환생을 해서 씩이 나죠. 씩이 나는 것이 인도환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도환생하는 것도 그 자손들이 얼마나 정성껏 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짓집으로 태어나느냐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도 있죠. 또 강릉의 차원이라서 강릉끼리 태어나게 하느냐? 하하하... 선신이라서 선신끼리 태어나게 하느냐? 가족의 모든 것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는 배우면서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고 업을 면제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잘 생각하고 계속 지극하게 수행해서 자기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죽으면 더하고 탈함도 없기 때문에, 그게 세로이 의복을 다시 갈아입고 나오는 때라 교차로가 되거든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더 배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하고 탈함이 없죠. 이 몸, 모습이 없으니까 부딪침이 없고, 부딪침이 없으니까 상대가 없고, 상대가 없으니까 배울 게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살아 있을 때 꼭 이 도리를 배워야 된다는 얘깁니다.

**질문자(2남):** 예, 영혼세계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앞으로 많이 있고 더 문의할 사항이 많지만 시간 관계로 다음에 또 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질문자(3남):** 저는 몸이 아플 때 우선 약을 생각하고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서는 아플 때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같이 맡기기 전에 약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인공에 맡기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 얘기를 하시니까 웃음이 나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상원사에 있으면서 실험을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하루 몇백 명씩 이렇게 달려들었습니다. 산에 개미 행렬처럼 주욱 그냥 하얗게 줄을 샀습니다. 하여튼, 그럴 때 나는 토굴 안에서 얼굴을 보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고 가는 거죠, 그냥.

그런데 말합니다. '약을 먹어라, 먹지 마라' 할 게 없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무슨, 맡긴다 안 맡긴다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즉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몸을 자기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떡하?' 하고 그냥 그럴 테죠.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모두 작용을 해서 고쳐요. 자기가 형성시킨 기계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 알겠죠. 그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그 작업장의 기계를 만들어 놓기도 했기 때문에 더 잘 아니까 작업을 해서 빨리 고쳐 내놓죠. 그러나 약을 먹는다는 말 하나만 통신이 되지를 않아요. 통신이 되지를 않아서 캄캄하니깐 병원에도 가야 하고... 남을 믿고 가는 거죠, 뭐.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죠. 만약에 이 도리를 진짜 알고 진짜 믿는다면 병원에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거나 똑같이 행한다. 그런데 벌써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거는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 이만하면 이거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모두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기에서 생각이 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할 한 사람에게 한해서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진실해서 약을 먹어도 밥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만이 모두

26면으로 계속

## 학인모집

영남범패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8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래 -

- 입교일시: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기간: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식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수 강 일: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6시까지
- 준 비 물: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교육장소: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사가 406호 <서진주 I에서 5분거리>
- 카페안내: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 보세요
- 문의전화: 055)747-8419

영남범패불음원

##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지향하는 사) 부산산화회의 맥을 이어 종합 불교예술로 승화된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에서 의식교육 3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 의 내 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1.의 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화	2시~5시 아침7시	30명 (6개월)
2.의 식 전문반	①이론실기, 사물다루는법 각종사찰행사전문반 ②전통예능(범음범패:삼신이온진 언성,복창계,원강도랑,운심계,오공 양소리,진령계,사다리니,목건이,실 개수공발보리,청양성호,관음계,합장계,영산작법소리등,30여곡)	목	2시~5시	20명
3.작법반	바라,나비,사찰학춤	금	2시~4시	30명
4.구약반	태평소,단소,대금 (영산회상,청성곡등)	금	4시~6시	30명

◆교육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영남불교예술대학

◆접수 연락처(교학처): 051)327-5095 / 010-2314-1279

- ◇ 기숙승방 운영(선착순 우선):단기 수련 후 심사 거쳐 이수증 발급
-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 각종 사찰행사 전문으로 하는 스님 전국에 배정되어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마음의 힘이 모이면 어두운 길에 환한 등불이 됩니다. (보시금중 일부는 어려운 불자 자녀들의 장학기금에 쓰입니다) 010-2314-1279, 051)327-5095

한방(韓方)치료로

## 간경화, 간질

###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 백남, 뇌수종

###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http://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